

“5·18 도청진압 실패 대비해 무장헬기 대기시켰다”

5·18 조사위, 진상규명 대국민 보고회

헬기서 연습탄 사격 확인

집단 발포 이전 실탄 배급

20곳 총격 사상자 400여명

1980년 5월 27일 도청진압을 위한 상무총장 작전 실패를 대비해 2차 작전으로 광주비행장에 무장헬기를 대기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출범해 올해 활동 종료 앞둔 조사위가 헬기사격과 발포명령자, 암매장 소재 등 진상규명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5·18진상조사위원회는 16일 오후 대국민보

고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참여한 현장 계엄군 2,800여명과 경찰, 지휘관과 책임자 등 주요인물 등 수천 건에 달하는 대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사위는 헬기 사격과 관련 도청 진압 작전 실패 대비 헬기 운용과 연습 사격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 501, 502항공대에서 복무한 조종사 3명으로부터 27일 도청진압 작전(상무총장작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작전 회의에서 103항공대장 이모 중령이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에 대비해 상무총장작전이 실패했을 경우 2차 작전으로 광주비행장에 무장헬기를 대기시키고, 공수부대 잔여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타격하기

위한 작전계획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소준열 전남북계엄본부소장이 지난 1988년 밝힌 헬기사격 장소 조선대학교 절개지를 조사했다”며 “코브라 헬기에서 사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칸탄두를 발견했고, 20mm 연습탄두인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대 절개지에서 발견한 20mm 연습탄두의 발견 장소가 계엄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검찰 진술한 사격지점과 일치한다”며 “당시 코브라 헬기를 운용한 부대는 육군항공대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위협사격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들의 발포 명령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조사위는 “발포 지휘계통과 관련된 주요인물 70여명을 조사했다”며 “진압작전 현장에 파견된 3여단 대대장 김 모 중령은 1980년 5월 20일 작전 참보로부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 실탄을 지급하겠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포 지휘계통 주요인물의 진술을 살펴보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박 모 차장의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며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내려갔다’, 육군본부 보안부대장 김 모 대령의 ‘참모차장 황영시가 광주진압작전의 실질적 사령관이었는데 이를 움직인 사람은 전두환 사령관’ 등을 통해 전두환으로부터 별도의 보고체계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또한 조사위는 진압작전 동안 최소 20곳에서 50여회의 발포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시작해, 20일 광주역 인근, 21일 전남도청과 전남대 일원, 조선대, 학동, 송암동 등에서 발포 피해를 확인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 135명, 부상자는 300여명이 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1980년 5월 21일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이 이뤄진 전날부터 장갑차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돼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광주역과 도청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지휘관과 사령부의 현장 통제는 없었다.

이밖에 조사위는 민간인 피해 규모,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소재, 민간인 집단학살, 5·18 왜곡, 피해자 탄압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5·18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입법목적에 달성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의혹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1,646개 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참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왜곡 세력 퇴출, 오월정신 계승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특전사회 5·18묘지 참배는 폭거”

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동선연석'과 묘지 기습참배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공식 참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식과 기습참배는 오월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한 행위”라며 공동선언 즉각 폐기와 사과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와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의 ‘용서·화해 대국민 공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유봉식 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16일 광주 북구

이들은 “기만적인 기습 참배는 광주 5·18 정신을 훼손하고 오월정신을 기만했으며, 진실을 부정하고 가치를 짓밟는 행위였다”며 “지난 몇 개월간 선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가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것에 대해 황당함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참배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특전사회의 2차 기습참배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오늘은 앞서 공평2단체와 특전사회가 참배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날이다”며 “특전사동지회가 행사를 취소했지만 그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틀기로는 양 단체가 오는 21일 또다시 국립묘지 참배를 계획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국민 선언에 대한 반성과 철회, 사과없이 다신 용서하지 않고 묘지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 날도 이곳에서 결의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이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참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5·18정신의 헌법전문수록과 오월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등을 약속했지만 그의 1년간 행보는 오월정신과 반대됐다”며 “기만적인 참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찬기 기자

5·18 기념식장 최고 수준 경호

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 주변에서 민·관·군·경 합동으로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태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5·18 기념식 당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광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행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된 데 따른 조치다.

정보당국은 특경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광주 주요 시설 영상 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도 필요한 경우 총력 경호 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민찬기 기자

오늘 오월첫동네 문화페스티벌

광주시 북구는 17일 5·18 사적지 1호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전남대학교와 함께 ‘오월첫동네 문화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3주년 5·18을 기념하기 위한 전야제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첫 동네’라는 의미를 지닌 오월첫동네 등 다양한 단체·기관들이 참여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5·18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전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최환준 기자

토지매매 → 8,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담5분, 광주 20분, (6m도로접)

- ① 세컨하우스
- ② 소형 주택
-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 ④ 주말 하우스 최고
-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010-6670-9800

상가매매 (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매매,임대) 권리금 없음

▶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 (6층,7층) = 140평

시세 → 14억
급매 7억

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산구 연산동 (근린시설) ▶ 감정가 29억 → 최저가 20억
 북구 삼각동 (다가구원룸) ▶ 감정가 7억7천억 → 최저가 5억4천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광주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정가 31억 → 최저가 31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5천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2천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 ▶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3억2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천

010-2614-9801